

##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1년 7월 29일(목) 조간
배포일시	2021년 7월 28일(수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담당자	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(044-550-4653, soolee@kdi.re.kr) 권기대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장 (044-550-4642, kidae76@kdi.re.kr)

# 국민 86.8%, “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증가할 것”

e경제정보리뷰<sup>1)</sup>,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민 인식조사 결과

- KDI 경제정보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,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
  - 일반 국민의 81.9%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‘개인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’이라고 평가함.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‘만성질환자’(66.7%)를 꼽음.
-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부 분야별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원격의료는 ‘의료접근성 향상’(4.3점/5점 만점)을 가져오지만 ‘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’(3.8점), ‘부정확한 진단·진료 가능성’(3.8점)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

1)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행하는 e경제정보리뷰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는 온라인 계간 경제정보지임. 2021-02호에는 ‘디지털 헬스케어’를 주제로 핵심이슈 동영상, 전문가 좌담, 해외동향, 소셜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 등이 소개

- DTC(소비자 직접 의뢰) 유전자 검사는 ‘개인 맞춤형 건강관리’(3.8점), ‘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’(3.8점)을 가능하게 하나 ‘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’(3.8점)을 우려
  - AI 헬스케어의 경우 ‘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’(3.9점)을 향상시키지만 ‘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’(3.7점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.
-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‘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’(71.5%)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이를 위해서는 ‘개인정보 남용·유출 등 부작용 해결’(53.6%)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
-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향은 목적에 따라 상이한데 ‘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’를 위해서는 87.0%가, ‘맞춤형 운동·식이처방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이용’에는 83.7%가, ‘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’에 75.1%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. 반면 ‘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상품·서비스 개발’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45.3%로 상대적으로 낮았음.
-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는 ‘향후 현재보다 증가할 것’(86.8%)으로 예상되며,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‘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’(39.5%)과 ‘개인정보 보안 강화’(24.4%)가 필요하다고 평가
-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“과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”며 “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밝힘.

#### ❖ 첨부. 세부 조사 결과

## ❖ 첨부. 세부 조사 결과

#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

## 1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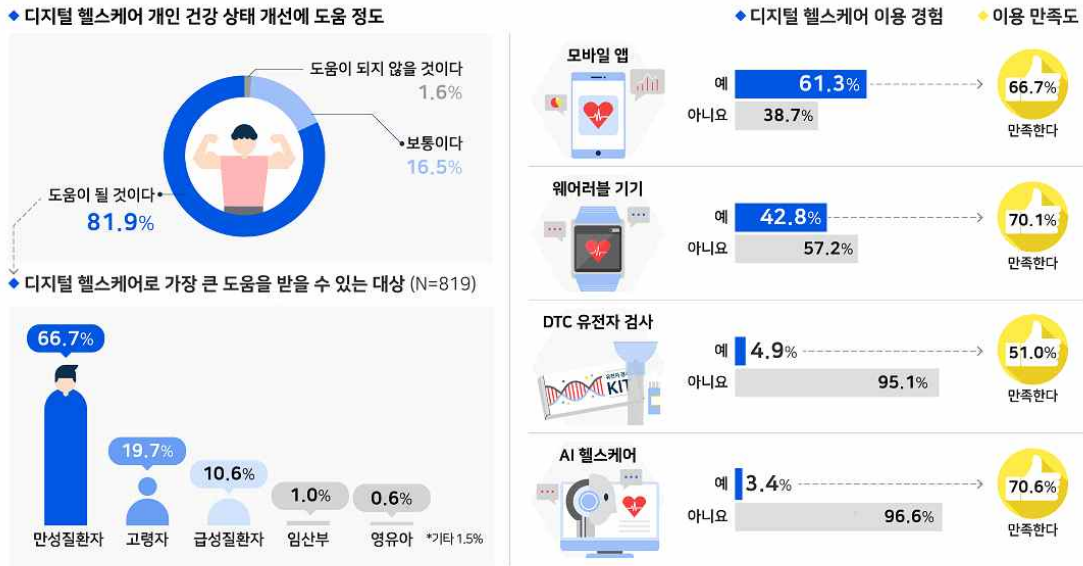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: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
- 조사방법: 자기기입식 웹(Web)서베이
- 조사기간: 2021년 6월 3일 ~ 6월 8일
- 표집방법: 지역, 성별, 연령별 층화표집
- 표본오차: 95% 신뢰수준에서  $\pm 3.1\%$

## 2 세부 조사 결과

### 1.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 인식 및 이용 경험

- 일반 국민의 80% 이상,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평가
    - 일반 국민의 81.9%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상태 개선에 ‘도움이 될 것이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‘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’는 의견은 1.6%에 불과했음.
      -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응답자(N=819)의 과반이 ‘만성질환자’(66.7%)를 꼽음.
    -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 모바일 헬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, 이용 만족도 또한 높았음.
      - ‘모바일 헬스’의 이용 경험(모바일 앱: 61.3%, 웨어러블 기기: 42.8%)은 ‘DTC 유전자 검사’(4.9%)와 ‘AI 헬스케어’(3.4%)보다 많았음.
      -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자의 과반이 ‘만족한다’\*고 응답
- \* 모바일 앱: 66.7%, 웨어러블 기기: 70.1%, DTC 유전자 검사: 51.0%, AI 헬스케어: 70.6%

[그림1]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 인식 및 이용경험



## 2. 디지털 헬스케어 세부 분야에 대한 인식

□ 디지털 헬스케어의 각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

- 원격의료는 ‘의료 접근성 향상’을 가져오지만, ‘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’, ‘부정확한 진단·진료 가능성’이 존재한다고 평가
- DTC(소비자 직접 의뢰) 유전자 검사는 ‘개인 맞춤형 건강관리’, ‘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’을 가능하게 하나, ‘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’을 우려
- AI(인공지능)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‘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’을 향상시키지만, ‘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’이 발생할 것을 예상

[그림2] 디지털 헬스케어 세부 분야에 대한 인식



### 3.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인식

- 일반 국민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데이터 제공 의향도 높았음.
  - 일반 국민의 71.5%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, 이를 위해서는 ‘개인 정보 남용·유출 등 부작용 해결’(53.6%)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제언
  -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은 ‘개인’(77.0%)에게 있다는 생각이 강했으며, 데이터 제공 의향도 높게 나타났음.
    -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‘정밀한 진단 및 진료’(87.0%), ‘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용’(83.7%), ‘학술·연구 목적’(75.1%)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, ‘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·서비스 개발’(45.3%)의 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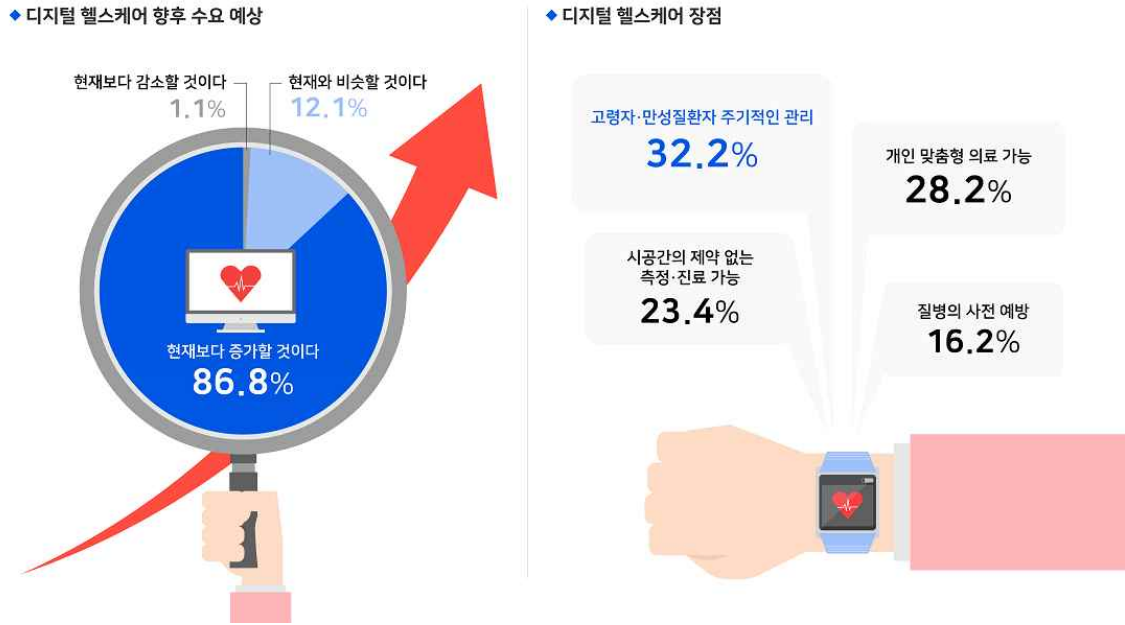
[그림3]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인식



### 4.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

-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
  - 일반 국민의 86.8%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‘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’라고 응답
  -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으로 ‘고령자·만성질환자 주기적인 관리’(32.2%)를 꼽았으며, ‘개인 맞춤형 의료 가능’(28.2%), ‘시공간의 제약 없는 측정·진료 가능’(23.4%), ‘질병의 사전 예방’(16.2%) 순이었음.

[그림4] 디지털 헬스케어 향후 수요



-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
  - 일반 국민의 과반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 시 ‘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’(50.6%)이 가장 우려된다고 하였으며, 다음으로 ‘개인정보 유출 우려’(20.9%)를 꼽음.
  -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‘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’(39.5%)과 함께 ‘개인정보 보안 강화’(24.4%), ‘기술적 불완전성 보완’(22.2%)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

[그림5]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

